



광주 투자진흥지구 CGI센터 권역 전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서 문화산업 꿈 펼치세요~

아시아문화전당·광주CGI 센터·아킴보호텔 권역...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선정  
GICON, 기업 유치 총력...콘텐츠 제작 환경 제공·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완성을 목표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통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 판로 확보는 물론 다양한 조세·자금 혜택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콘텐츠·디지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진흥지구는 2004년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로, 문화산업체의 투자유치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문화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지구다.

광주에는 공공부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과 광주CGI 센터 권역,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민간사업자 지정 권역인 아킴보호텔 권역까지 총 3개 투자진흥지구 권역이 지정돼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은 전일빌딩245,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로 구성된다.

전일빌딩245는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투자진흥지구 랜드마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광주콘텐츠허브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센터별로 문화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 콘텐츠 창업 및 스타트업 제작 환경 지원, 음악 창작부터 공연까지 이뤄지는 음악산업 플랫폼 역할을 맡아 지역 인재 양성 및 기업 유치·성장을 돕는다.

광주CGI센터 권역에는 광주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 포함돼 있다.

광주CGI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영상과 실감콘텐츠 제작 허브로, 문화콘텐츠의 제작·육성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까지 모두 제공하는 광주 문화산업의 대표 거점으로 꼽힌다.

센터 내에는 실제 촬영이 가능한 종합촬영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스트리밍이 가능한 온에어스테이션 등이 배치돼 있다.

GCC는 차세대 실감콘텐츠 제작과 체험을 위한 플랫폼으로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환경을 물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 등 최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제작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지자체 차원의 기업 성장 환경 지원 외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입주한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취득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도 15년간 지원된다. 세금 혜택 외에도 GICON 지원을 받아 해외 바이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GICON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영화·이슈포츠·게임·실감콘텐츠·음악·웹툰 등 대부분 문화산업을 가리지 않고,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비창업기에는 창업 아이디어 지식재산권(IP)화, 창업 정보 제공을, 창업기에는 사업 모델 등 사업계획 구체화를 돕고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기술·정책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도약기와 성장기에는 초기자금 및 추가자금 확보를 돕고 제품화 및 상용화부터 판로 확장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GICON은 아시아문화중심 육성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육성펀드는 광주의 첨단 문화·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출자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재원을 마련하고 총액의 60% 이상을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특화 펀드 구조로 이뤄진다.

특히 GICON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운영하는 5000억원 규모의 21개 펀드 연계를 통해 투자 자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투자액은 40건, 296억원 규모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지원한 투자유치보조금도 23억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성과도 눈에 띈다.

입주기업 총 매출액은 지난 2021년 1775억 27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1963억 300만원, 2023년 2131억 9700만원으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이 기사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큐로드는 광주시와 큐로드 광주지사 설립 및 지역 인재 100명 이상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게임·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곁으로 전달”

### ‘QROAD(큐로드)’ 광주지사

지난해 전일빌딩245에 개소

GCC사관학교 통해 인재 채용

광주 투자진흥지구인 전일빌딩245 광주콘텐츠 허브에는 다양한 콘텐츠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이 중 ‘QROAD(큐로드)’는 게임,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를 모아 오프라인 판매처로 연결하는 ‘O2O 서비스’까지 넓은 영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주로 다양한 콘텐츠와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에 필요한 사업 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품질보증(SW QA)과 모니터링 및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마케팅, 영상·디자인, 번역 서비스 등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큐로드는 글로벌 확장 성공, 영상제작 업체 인수 등 사업범위와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2024년에는 광주시, GICON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전일빌딩245에 큐로드 광주지사를 개소했다.

큐로드 광주지사는 협약 당시 투자진흥지구 입주와 함께 지역 인재 중심 채용을 약속하고,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약속했다. 큐로드는 현재 목표자인 100명 채용을 완료했다.

특히 GICON이 지역 문화 콘텐츠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GCC사관학교’를 통해 일부 채용을 진행한 점이 눈에 띈다. 큐로드 광주지사는 지난해 GCC사관학교 1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 11명을 채용했고, 올해 진행된 2기 프로그램에서는 8명을 추가 채용했다.

큐로드 관계자는 “문화 중심도시 광주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광주 인재를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해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와이즈브이에프엑스가 GCC사관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테크하이퍼 VFX’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콘텐츠·OTT 드라마·영화에 광고 제작까지

### ‘와이즈브이에프엑스’

‘선의의경쟁’ ‘뉴토피아’ 등 제작  
VFX 전문인력 양성 등 활동 다양

광주 투자진흥지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에 입주한 ‘주식회사 와이즈브이에프엑스’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재 콘텐츠 신생 기업이다.

와이즈브이에프엑스는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영화 기획 분야를 다루고 있다. 지난해 5월 신생 기업으로 설립됐으며, 지난해 8월 광주콘텐츠허브에 입주하며 본격적인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와이즈브이에프엑스는 설립한 지 채 2년도 안된 신생 기업이지만, 이미 지난 2월 U+tv에서 방영된 웹툰 원작 드라마 ‘선의의경쟁’과 소설 ‘인플루엔

자’를 원작으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드라마 ‘뉴토피아’ 등을 주요 작품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또 지난 9월 부산 벡스코 공동관에서 소개한 ‘두번째 아이’도 개봉이 예정된 주요 작품으로 꼽힌다.

와이즈브이에프엑스는 VFX(시각효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GICON의 대표적인 지역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에서 인턴십, 수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수료생을 직접 채용한다.

지난해 GCC사관학교 1기와 올해 2기에서 모두 ‘테크하이퍼 VFX’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편집·CG 활용 등 시각효과 분야 전문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그 결과 별도 절차를 거쳐 1기 수료생 가운데 17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고, 올해는 12월 초까지 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뒤 전원 채용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GICON은 지난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2차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왼쪽)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6층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전경.